



보도시점 2024. 6. 4.(수) 09:00 배포 2024. 6. 4.(수) 09:00

행복청, '인공지능 기반 정책소통 실습의 장' 열어

- 직원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인포그래픽 경진대회' 개최-
- 업무에 인공지능 활용, 실전 감각 높인다 -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직원들의 인공지능·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6월 4일(수)부터 6월 12일(목)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포그래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공부문에서도 보도자료 작성이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업무 성격에 맞는 인공지능 도구를 선택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공무원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대회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직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직접 활용해 자신이 맡은 정책이나 업무 내용을 시각자료로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각 부서에서 보유한 정책자료, 공공데이터, 통계 등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출품하게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1차 평가와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실제 행복도시 정책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상작 제작에 사용된 주요 인공지능 명령어(프롬프트)를 전 직원에 공유해 조직 전체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이번 대회가 직원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친숙하게 익히고 자연스럽게 실무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며, “행복청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특화 인재 육성을 통해 디지털·스마트 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정보화팀	책임자	팀 장	강자영	(044-200-3360)
		담당자	주무관	나도겸	(044-200-326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